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미국 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
- WSJ:투자자들은 새로운 연준 구성에 어떻게 대응하나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전문가들 이구동성 “내년 증시 상승”

[글로벌 무역]

- WSJ: 높은 미 관세에 예상치 못한 승자는... 멕시코
- Bloomberg: 중국, 자국 보호를 위해 무역교역법 개정

[오일]

- Yahoo Finance: 유가 상승세... 우크라이나 회담 및 중국 정책 기대감

[인공지능]

- WSJ: 기업들은 실제 AI 어떻게 활용하니?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미·중, 불안정한 무역 휴전 상태로 2026년 맞아
- Bloomberg: 수요 둔화로 11월 중국 산업 이윤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기차 전환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WSJ: 테마파크의 New 전략 : 소규모, 저비용, 단시간 체험 중심

[미국 경제]

WSJ: The Economic Divide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Is Growing

미국 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

- 미국의 큰 기업들과 작은 기업들간의 수익이 벌어지는 현상은 미국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구체적으로 S&P 500에 상장된 큰 기업의 순수익은 올해 3분기에 평균 12.9% 상승한 반면에 작은 기업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 소기업들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 소비자들의 신중한 지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11월에만도 일자리 12만개가 줄었다.

기사

WSJ: How Investors Are Preparing for a New Fed **투자자들은 새로운 연준 구성에 어떻게 대응하나**

- 투자자들은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에 우려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파워가 약한 의장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 독립성이 약한 연준이 미 경제와 금융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약화될 경우 정책 신뢰도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상승, 국채금리·시장금리 상승 등 오히려 차용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준은 지난 15개월 동안 금리 5.25%~5.5%에서 3.5%~3.75%로 낮추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Every Wall Street Analyst Now Predicts a Stock Rally in 2026 월가 전문가들 이구동성 “내년 증시 상승”

- 월가의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S&P500 등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 21명의 응답한 전문가중에 한명도 하락세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략가들은 이 같은 이견 없는 입장이 오히려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다.
- 전문가들이 증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성장 지속 인플레이 둔화, 기업 실적 지속 때문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매크로 리스크와 높은 밸류에이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

[글로벌 무역]

WSJ: The Unexpected Winner of Rising American Tariffs Is Mexico 높은 미 관세에 예상치 못한 승자는... 멕시코

- 올해들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상품 무역 규모는 거의 9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 관련 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멕시코산의 실질 관세율은 4.7%인 반면에 중국산 실질 관세율은 37.1% 라는 것이다.
- USTR Jamieson Greer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 감소분의 25%는 멕시코가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수입은 중국산 일부가 멕시코산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기사

Bloomberg: China Revises Foreign Trade Law to Safeguard National Interests

중국, 자국 보호를 위해 무역교역법 개정

- 중국은 자국 무역법을 개정했는데 자국의 주권, 안보, 성장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은 보도했다.

- 이 법에는 또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시스템(trade adjustment assistance system: 무역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 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 이 같은 관련법 개정 목적은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고품질 교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 법은 제정 연도 1996년 이래 두번째로 큰 개정 조치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Pushes Higher With Ukraine Talks and China's Pledge in Focus

유가 상승세... 우크라이나 회담 및 중국 정책 기대감

- 유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평화 회담 기대와 중국의 성장 진작 의지 표명에 힘입어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62, WTI는 \$58 이상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긍정적 신호가 공급 불확실성 우려를 일부 완화했지만, 구체적 합의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 동시에 중국의 정책 신호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수요 회복 기대를 높였다. 즉, 중국 재정국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공급 과잉 우려와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기사

[인공지능]

WSJ :What Are Companies Actually Doing With AI? Our Reporters Talk It Out

기업들은 실제 AI 어떻게 활용하니?

- 미국 기업들은 AI 도입에 대해 CEO들이 적극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활용은 기대만큼 혁신적이기보다는 업무 자동화, 문서 요약,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비교적 일상적인 작업에 집중되고 있다.
- AI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같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PDF·이메일 처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인간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로 시간 절약과 비용 회피를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인력 감축 혹은 채용 축소를 AI 효율성의 결과로 언급하기도 한다. AI 파일럿 95%가 아직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 책임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ROI)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물론 자주 비 재정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 성숙도, 신뢰 문제와 함께 AI를 진정한 경쟁 우위로 만드는 요소로 사람과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처럼 회사 전체 AI 문화와 최고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성공 사례로 부각된다.

[글로벌 경제]

Bloomberg: US and China Head Into 2026 With a Fragile Trade Truce 미·중, 불안정한 무역 휴전 상태로 2026년 맞아

- 미국과 중국은 2025년 말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수준의 무역 휴전에 합의하며 2026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인 관계 회복이 아닌 매우 취약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이번 휴전은 관세 인상 중단과 일부 교역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반도체와 첨단기술 통제, 희토류 등 전략 자원,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핵심 갈등 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기술 보조금 문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역시 수출 통제와 법·제도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전략적 경쟁 기초를 지속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의 미·중 무역 휴전은 정책 변화나 정치·안보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며, 2026년에도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관계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Bloomberg: China Industrial Profits Decline in November as Demand Cools 수요 둔화로 11월 중국 산업 이윤 감소

- 중국의 산업 기업 이윤은 2025년 11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둔화 신호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산업 이윤 감소 폭은 전달보다 확대됐으며, 이는 내수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장 출고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압박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 소비와 투자 모두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매출과 마진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연초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산업 이윤이 아직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기 회복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일부 첨단 제조업에서 약간 개선됐지만, 석탄 등 전통 산업의 이윤 감소가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 이러한 흐름이 중국 경제가 여전히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경기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How Hybrid Models Are Helping Keep Automakers' Electrification Plans Afloat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기차 전환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며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 전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방 정부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가 9월 말로 종료된 이후 전기차 판매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확대된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전기차 단일 모델에 의존하던 전동화 계획을 조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완전 전기차 모델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많은 제조사에서 채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성장 둔화를 보완하며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

기사

WSJ: Theme Parks' New Strategy: Smaller, Cheaper and Shorter

테마파크의 New 전략 : 소규모, 저비용, 단시간 체험 중심

- 테마파크 업계는 전통적인 대규모·고비용·장시간 체험에서 벗어나, 더 작고, 더 저렴하며, 체류 시간이 짧은 새로운 형태의 테마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화된 체험 공간은 몰입형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낮추고, 모듈형 어트랙션과 정기적 콘텐츠 업데이트로 소비자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 넷플릭스 하우스와 같은 사례처럼, 이러한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가족과 그룹 고객을 겨냥하며, 전통적 TV·영화 관객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연령별 타깃 파크 전략을 통해 초기부터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